



펴낸날 2023. 07. 17.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유상혁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이주사목위원회 체험기

임계진 사도요한

이주사목을 경험하면서 한국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주민들의 자녀들도 마고네 공부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한국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리이다. 심지어 이주민들은 한국사람들처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일을 한다. 그럼에도 왜 한국사람들은 그들을 부정적인 인식으로 대하는 것일까?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이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된다.

이주사목 체험을 통해 한국어 교실과 마고네 공부방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이방인들을 위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교회마저 이들을 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번 체험을 통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볼 수 있었다. 교회는 약하고 어려운 이들 옆에 있어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로해주시며 치유해주셨다. 이처럼 교회도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차별받는 이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그들을 환영해주어야 한다. 이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구한 마음으로 나부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신학과 4학년 학생들의 사회사목 현장실습이 6월 23일~26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주사목위원회 사목현장에서 느낀 체험을 함께 나누어주었습니다.

"이주 혹은 이주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자유"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2023년 9월 24일) 주제)



신부님 글

여름입니다. 올해는 만두 찜기 속에 있을 것 같은 여름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사람들은 벌써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일에 있어서 무료함을 느끼고, 특별하지 않은 일상 안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익숙함을 버리고 불완전한 여행을 떠납니다. 예측할 수 없고, 안정적이지 않은 이 떠남은 나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점점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새로움으로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는 세상에 내몰려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교가 실례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의미는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 배고픔에서의 해방, 전쟁에서의 해방, 관습으로부터의 해방과 같은 우리를 묶고 있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가끔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해방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여정 안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계속 발견해 나갑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방을 이룰지 그리고 그 어려움 뒤에 어떤 희망이 있을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계 각지에서 희망을 찾아 떠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지중해를 넘는 희망의 이주는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전쟁이나 폭력 때문에 자신의 나라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희망을 품고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들을 경계하고 혐오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지만, 잠재적인 위협자로 생각합니다. 이주의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도 이주의 문제가 간단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 단순하고 바보 같은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주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새로운 발견과 기대 그리고 희망입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새로운 움직임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움을 찾게 해줍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알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새로움을 찾아 나갈 때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직 찾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이들과 만나세요. 분명히 갈등이 있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세례자요한 신부

상담실 소식*



태국공동체에서 선교사로 근무한 프란시스 선교사가 지난 6월 말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자국민들을 위해 노력을 아낌없이 쏟으며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다. 본국으로 귀국해서도 주님의 은총 안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몽골공동체에서 근무한 펠리치타 선생님도 6월 말일로 퇴직하셨습니다. 한국 문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주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함께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큰 은총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두 분 영육 간의 건강과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공동체 소식*



산타크루잔 행사는 종교적 의미를 갖는 필리핀 전통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5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 꽃 봉헌(특히 어린이들이 봉헌)을 하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 성모님을 모시고 행렬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에 십자가를 쥐고 있는 헬레나 여왕이나 천사, 성모님을 상징하는 전통의상을 입고 참석하였습니다.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이 전통적인 행사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며,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깊은 믿음과 한 분이신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 행사에 많이 참석하여 의미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집 소식*



입소하고 있는 한 모자가정이 신앙의 꽃을 피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재작년에 엄마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자녀가 지난 5월 공덕동 성당에서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집은 이혼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다문화모자가정을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한 뒤에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쉼터입니다. 입소기간(2년) 안에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들이 주님 안에 위로를 받고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성모성월 행사〉



〈재난(지진)대비 안전교육〉



〈교사교육(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몽골공동체 소식*

몽골에서 20년 넘게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김성현 스테파노(대전교구) 신부님께서 지난 5월 26일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선종하셨습니다.故김성현신부님께서 한국에 휴가 나오시면 언제나 저희 몽골공동체 미사에 함께해주셨고 피정지도도 해주시며 몽골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와 깊은 인연이 있던 신부님의 갑작스런 선종 소식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휴가 중에도 몽골 신자들을 위해 개인 시간을 내어 헌신해준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故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베트남공동체 소식*



보타택(세례자 요한, 말씀의 선교 수도회) 신부님께서 베트남공동체로 발령받아 6월부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신자들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헌신하겠다고 하시는 신부님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소식지 발송 변경 재공지사항* (연락주신 분들은 다시 연락 안 주셔도 됩니다.)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을 보다 잘 선용하기 위해(소식지 발행 비용과 우편비 절감),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으로 소식지 받는 방식을 더 확대하려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1번) 소식지 받지 않기: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소식지 발송을 중지해 드리며 소식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번) E-mail로 소식지 받기: migrant@catholic.or.kr로 성함, 전화번호와 함께 메일 주시면 수신된 후원자님의 E-mail로 소식지를 발송해드립니다.
- 3번) 기존의 방식대로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안 주셔도 됩니다.

달라지는 상황에 후원회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으로(02-924-9970)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후원미사 안내*

문의 / 02.924.9970

매월 세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새로운 후원 가족을 환영합니다!

김기남 로사, 류기신 데레사, 신희권 요셉, 김성례 글라라, 박은영 스킨라스티카, 김혜경 루시아, 정현숙 안나, 김희숙 엘리사벳, 김영혜 베네딕따, 전경자, 하명선 아녜스, 서선희, 김경남 크리스티나, 김창희 베레나 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안내*

-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